

해체 및 실험적 건축가들의 기하학적 디자인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pressional characteristics of Geometrical Design in the Deconstructive and Experimental Architects

황태주*/Hwang, Tae -Joo

Abstract

In the early 20th c. scientific thoughts make a change the absolute and separate concept of space-time into relative concept of continual entity; a kind of ideal world. It suggests that the meaning of geometry as absolute truth with which has endowed human beings would changed to a relative meaning of accumulation in intellectual work on 'nature'.

This cognitive changes appeared into absolute arts in 20th c like Cubism, Supermatism or Constructivism, De Stijl movement which had repected the relative concepts like Einstein's 'theory of relativity' as a developed thought from Newton-Cartesian cognition on the world.

Abstraction would be adequate method for expressing the dynamics and interrelationship between forms and for giving values to indivisual elements in a composition. This method had appeared Modern architectural form, as a common framework.

The expression characteristics of geometrical design in Deconstructive and Experimental architecture were summerized in four features through the results of the analysis. First, the relation of architectural element and intertextuality is expressed in discontinuation of context and refusal of functional building. Second, the concept of trace expresses as connection of place, decomposing of excavation of trace, trace of axis, trace of fragments. Third, anti-gravity expression is there to express of open cubic, to outgrow of rectangular system, to outgrow of volume, to separate of ground connection. Fourth, the complex composition of abstracted geometric form is there to abstracted geometry about indefinite shape, to layer through the overlap and collage, to de-meaning and amusement of form through the pursuit of uncertainty, to indeterminate of formal meaning through operation and composition of similar form cause to the diverse of meaning.

키워드 : 기하학, 추상예술, 해체주의, 실험적 건축

1. 서론

'기하학은 인간의 언어' 라는 르 꼬르뷔제의 말처럼, 건축에 있어서 기하학은 건축구성의 중요한 도구중의 하나로 사용되어 왔다. 이는 고대 이집트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기하학은 건축 공간 구성의 사고를 지배하는 인식론상의 문제가 되어왔으며, 동시에 건축을 실현하는 실제수단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우주의 법칙으로서 고대 이집트부터 19세기까지를 지배했던 고전적인 기하학 개념은 새로운 물리학과 시대 사상의 출현으로 그 개념이 붕괴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새로운 시대 정신은 또 다른 예술 형식을 요구하게 하였다.

특히 20세기 초에 이르러 회화에 나타난 기하학적 구성은 대상의 추상화 또는 기하학적 구축이라는 새로운 접근 방법과 표현을 가능하

게 하였으며, 이는 20세기초의 추상예술뿐 아니라 건축 형태의 구성과 창작의 기교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되었다.

즉, 새로운 예술의 한 형식으로서 기하학적 구성은 20세기초의 건축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전개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80년대 이후 해체주의 건축과 최근의 실험적 건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20세기 초의 기하학적 추상예술 운동을 살펴봄으로써 기하학적 구성 개념과 건축 형태의 특성을 도출하며, 또한 80년대 이후 해체주의 건축과 실험적인 건축가들의 건축 형태 구성에 나타난 기하학적 디자인 표현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기하학과 기하학적 추상

2.1. 기하학과 추상의 개념

수학적 공리로서 실제의 세계에 대한 영원하며 명확한 진리를 표현

* 정희원,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 수료

하는 기하학적 형상들은 절대적인 미의 표현으로서 그리이스 시대 이후 수세기에 걸쳐 서양 철학과 과학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유클리드 기하학은 20세기초까지 유럽의 학문과 사상에 있어서 교과서가 되어 왔으며, 2천년 이상 공간의 참된 본질로 인정되어 왔다.

시간과 공간의 절대개념으로서 데카르트와 뉴턴의 세계였던 유클리드 기하학은 '동시성'이라는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좌우되는 상대적 개념으로 변화되었으며,¹⁾ 20세기초에 나타난 추상예술의 선두였던 세잔느와 큐비즘 화가들은 상대적인 시각에서 대상을 바라봄으로써 그들의 예술형식을 개발해 갔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부상하기 시작한 추상예술은 물질주의적 문명 환상을 극복하려는 정신적 항상성 속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추상(abstract)이라는 말은 본래 라틴어 abs-trahere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 의미는 대상의 전 구성 요소 가운데서 어떤 것을 잘라내어 밖으로 끌어내거나 또는 줄이는 것, 즉 어떤 대상을 그 전체 상에서 생략하고, 제거하고, 정리하는 것이며 이 과정의 작업을 '추상한다'로 표현한다. 대체로 예술에 적용되고 있는 추상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즉, 비구체적이고 애매모호한 것으로서의 추상적인 것과 전체상 가운데 특수한 것을 간추려내는 작용으로서 추상화 작업을 의미하고 있다.

1910년 이후 새로운 예술로서 추상이 언급되기 시작하였으며, 보링거는 기하학적 추상을 합법칙성에 의해 완성된 강한 생의 표출이라고 보았고,²⁾ 1930년대까지 기하학적 특성이 추상예술을 대변하게 되었다.

2.2. 기하학적 추상예술

고대 이집트의 종교적 초월성을 표현한 기하학적 형상, 인간의 형상을 비구체적 형상의 추상화로 표현된 초기 그리스도교 건축과 기하학적 원칙에 지배된 중세의 고딕 성당 등의 시대적 표현은 기하학적 양식화가 그 지배적 경향이었다.³⁾

이와같이 근대 이전의 기하학적 추상은 자연속의 합법칙성을 구하려던 인간이 정신적인 무력감을 느끼고 채용한 양식임에 비하여, 20세기의 추상운동은 인류가 지난 세월동안 합리적 인식의 길을 더듬어 오다 결국 知에 대한 궁극적 체념으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⁴⁾ 이러한 20세기초의 예술적 경향으로서 순수한 색과 형의 구성을 표현하는 기하학적 추상예술은 현실적인 대상을 화면에서 추상화함으로써 합리적 의식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합리적 도구로서 기하학과 기하학적 조형의 사고 방식은 르

1) 기하학을 인간의 정신이 자연에 부여한 것임을 깨닫게 해준 아인슈타인 이후 헨리 마르겐나우(Henry Margenau)는 "...상대성이론의 가장 중요한 인식은 기하학이 지성의 한 구조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발견이 받아들여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운 정신으로 공간과 시간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다룰 수 있고, 그것을 정의할 수 있는 가능성의 절차를 살펴볼 수 있으며, 관찰과 일치하는 공식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고 하여 공간과 시간을 다룬 모든 지성적 개념들처럼 상대적으로 보았다.

이성범 외, 신과학운동, 범양사출판부, 1986, pp. 283-289.

2) 오광수, 추상미술의 이해, 일지사, 1988, p.46.

3) 백기주, 미학, 서울대출판부, 1978, p.207.

4) 오광수, 앞의 책, pp.58-61.

네상스 시기에 3차원적 원근법을 완성하였고, 기하학적 형태, 리듬, 비례 등의 과학적 조합은 입면도나 평면도, 투시도 등의 모든 공간을 지배하였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세잔느에게서 암시받은 큐비즘은 현대 수학과 물리학이 추상적 공간의 깨달음에 기여했던 것만큼 우리의 공간인식을 증가시켰으며, 또한 그들의 작품은 제한된 유클리드 기하학의 포기와 우주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3. 20세기초의 기하학적 추상 예술과 건축형태 특성

3.1. 20세기초의 기하학적 추상예술

1) 큐비즘(Cubism)

단시점의 좁고 일면적인 르네상스식 원근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간 파악의 계기를 마련해 준 세잔느의 방법은 큐비즘과 세잔느 모두에게서 그들의 시각을 회화적 장치라는 하나의 유기적 복합체로 적용하고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⁵⁾

- ① 국부적 비례와 자연적인 외관을 시각적으로 왜곡시키는 것.
- ② 각진 입체로 형태의 윤곽을 왜곡시키거나 세분하는 것.
- ③ 캔버스 그 자체의 2차원적 평면을 선호함으로써 선적인 투시도법을 포기하는 것.
- ④ 다양한 시각에서 창출한 것의 동시적인 묘사.

공간의 특징은 그것을 보는 시각에 따라 변화하므로 공간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찰자가 공간 가운데 자신을 투입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자각이야말로 큐비즘의 중요한 공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선과 면이 합리적이고 유기적인 조직으로 순수한 조형의 논리가 탐구되어 갔으며, 이러한 점에서 큐비즘은 구성의 조형 논리상 추상적인 방법에 접근했음을 알 수 있다.

2) 절대주의와 구성주의

① 말레비치(K. Malevich)의 절대주의와 비대상예술

1911-12년 기하형태의 추상화를 그리기 시작한 말레비치는 1915년 모스크바에서 '절대주의선언' (Suprematist Manifesto)을 발표하였다.⁶⁾ '대상부재의 느낌'을 표현하는 그의 절대주의 회화는 순수한 기하학적 형태와 색채 사이의 관련성을 특징짓고 있으며 응용미술과 장식미술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역동적인 절대주의 구성화로서 입체적이고 3차원적인 구성을 출현시켰으며, 다양한 크기와 형태를 가진 육면체들의 수직, 수평적 구성을 '아키텍톤' (Architectons)이라 명명하고 최초의 건축적 구성을 시도하였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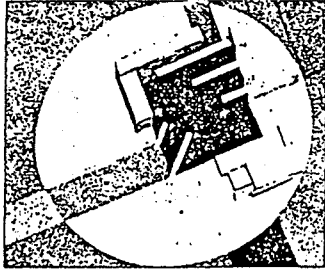
② 리시츠키(E. Lissitzky)와 프로운(Proun)

건축과 순수미술의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형태적, 미학적 발견들을 새로운 건축에 적용한 리시츠키는 1919-20년에 회화에서 건축으로 전이되어 가는 중간매체로서 프로운을 창조하였다. 다양한 형태를 가진 고흐체들의 투시도법적인 표현인 프로운은 새로운 3차원적 표현의 시도였다.(그림 1. 참조)

5) C. Van de Ven, 건축공간론, 정진원외 역, 기문당, 1988, pp.299-230.

6) 정인국, 근대건축론, 문운당, 1974, p.104.

7) 임종열, 절대주의가 현대건축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홍대석논, 1989, p.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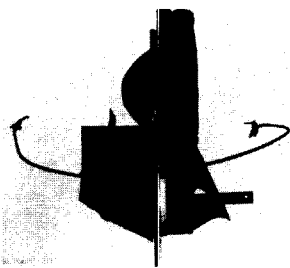


〈그림 1〉 리시츠키, 프로운(City, System for a Public Squares)

③ 타틀린(V. Tatlin)과 구성주의

타틀린의 '구성(Construction)'은 회화적 요소가 도입된 3차원의 실재공간의 발견과 다양한 재료들간의 상호관계가 탐구되었고, 공학적인 구조의 예술적 가능성을 제시하여 예술가들에게 이러한 구조들의 정밀함, 능률성, 공간관계, 재료들의 합리적 이용에 대해 매력을 느끼게 하였다. 이러한 그의 작업은 회화의 영역을 초월하여 건축에로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

1915-16년에 제작된 Corner Construction과 Complex Corner Relief는 시간과 공간을 제한하는 '프레임'과 '배경'을 제거하였고, '실재공간에서의 실재 재료'(Real Materials in Real Space)를 사용하여 새로운 공간적 형태를 창조하였다.⁸⁾ 〈그림 2, 3. 참조〉



〈그림 2〉 타틀린, Corner Construction



〈그림 3〉 타틀린, Complex Corner Relief

1922년 4월 Inkhuk에서 라로프스키를 중심으로 한 '건축가작업 그룹'은 공간과 지각심리학에 관심을 가지고 합리주의자들의 기본원리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⁹⁾

이들이 주장하는 건축적 합리성은 건물의 건설과정이 아니라 지각 과정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과학적 원리에 의한 형태의 표현에 주의를 기울여 아래에 열거한 사항들의 측면에서 접근되었다.

1. 기하학적 : 입면의 상호관계, 각(Angle), 표면(Surface) 등
2. 물리적 : 중량감(Weight), 밀도, 텍스처, 매스 등
3. 심리분석적 : 안정감, 균형 등

8) Camilla Gray, The Russian Experiment in Art 1823-1922, Thames & Hudson, 1966, pp.180-182.

9) 라로프스키는 "...이 그룹은 공간, 형태 및 그 구성방법이 건축의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요소라고 믿는다. 매스, Weight, 볼륨, 색채, 비례, 운동성 및 리듬은 2차적인 성분이며 그 표현수단이다. 그러므로 건축의 진정한 본질은 그 공간적 차원의 합리적인 상호관계에 있으며, 기본적인 문제는 건축이 구성수단으로써 사용하는 '공간'에 있다..."고 설명한다.

Anatole Kopp, Constructivist Architecture in the USSR, Academy Edition, 1985, p.124.

4. 합리적 : 표면의 표현성, 볼륨의 구성 등

이들은 건축 형태를 구성하는 큰 표면을 정사각형, 구, 원 등의 쉽게 인지되는 형태를 취하고, 관찰자에게 규칙적인 표면의 인상을 주도록 반복적인 패턴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은 시각적 모듈 체계를 형성하며 건축적 모티브를 구성하게 되었다.

3) 데스틸(De Stijl)

데스틸은 추상작용만을 창조적 충동으로 인식하면서 외부 감각 세계의 모든 외관들을 순수한 비물질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변형시켰다. 이 개념을 표현하는 수단은 평면과 공간이었다.

데스틸은 그 형태에 있어서 면과 면의 구성에 의해 특징 지워진다. 몬드리안(Mondrian)의 신조형주의적 입장에서 보면,¹⁰⁾ '어떤 대상을 표현했느냐'라는 문제보다 '면의 구성체계 혹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가 중심 개념이었다. 이는 큐비즘이 주제를 잃어버린 대상을 화면에 배치하고 구성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과 말레비치의 비대상 예술의 개념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분절화된 면요소의 비대칭적 균집화와 면요소의 조합에서 생성되는 공간의 실험으로 특징 지워지는 데스틸 건축은 그 중심 개념이 면으로부터 출발하여 면의 분절과 조합에 의해 형태구성이 달성된다는 것이다.

3.2. 근대건축형태의 기하학적 구성 특성¹¹⁾

1) 기하학적 형태가 볼륨으로 파악된다.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 건축처럼 건축의 기하학적 형태는 입방체, 원통, 구와 같은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입체)가 사용되지만 근대건축의 기하학적 형태는 볼륨으로 파악된다.

볼륨으로서의 기하학적 형태는 기본적으로 네 개의 연속적인 면과 입방체로 이루어진 꼬르뷔제의 시트로앙 주택(Maison Citrohan), 바이첸호프의 주택, 그리고 바우하우스의 입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외형이 단순한 기하학적 도형으로 존재하며, 내부는 공간으로 차있으면서 매스대신 두께가 없는 면으로 성립된다. 따라서 기하학적 형태는 그대로 볼륨의 감각을 주는 것이 아니라 표면의 처리와 깊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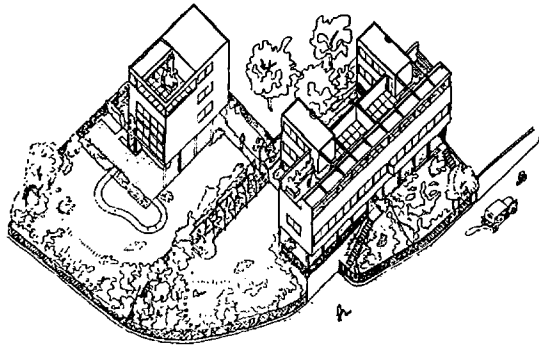
10) 1926년 몬드리안은 신조형주의 소론에서 신조형주의의 일반적 원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6개의 항목을 들고 있다.

1. 조형수단은 원색(적, 청, 황)과 무채색(백, 흑, 회색)을 이용한 평면 내지 프리즘형태이어야만 한다. 건축에 있어서 공간은 무채색에 해당하고 소재부분은 채색에 해당한다.
2. 조형수단 상호간의 등가성(Equivalence)이 필요하다. 크기가 다르거나 색채가 다르더라도 그것들은 서로 동일한 가치를 지녀야만 한다.
3. 조형수단에 있어서의 이원적 대립은 구성(Composition)에 있어서도 요청된다.
4. 일정불변의 균형은 대립적 요소에 의해 얻어지게 되고 극한적 조형수단인 직선과 기본적 대립, 즉 사각형 속에서 표현된다.
5. 대립하는 조형수단이 화해되고, 중화되는 균형은 비례체계로부터 생겨난다. 이 비례체계는 생성한 리듬을 창조한다.
6. 모든 대칭성(Symmetry)은 배제되어야만 한다.

信定雄郎, 몬드리안과 데스틸, 현대디자인 이론의 사상가들, 미진사, 1983, p.57.

11) 김광현, 건축형태에서의 수와 기하학, 건축사 8903, pp.35-37.

관계를 가지게 된다.(그림 4. 참조)



〈그림 4〉 르코르뷔제, 바이젠호프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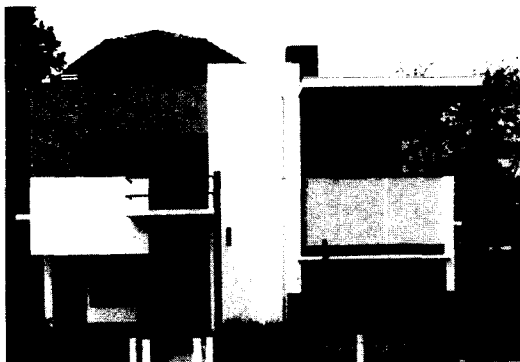
2) 기하학적 형태를 단편화한다.(선, 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로비 하우스는 이전의 전통적인 방법대로 코너에 블록으로 닫지 않고 그 코너를 삭제하면서 대신 다른 높이로 직교하는 두 개의 벽면을 두고 있다. 그 결과 형태는 강한 수평성을 갖고 내부는 외부로의 방향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수법을 통해 코너의 벽은 내부로부터 흘러나오는 공간에 의해 매스의 분절과 단편화가 되고 있다(그림 5. 참조).

리트벨트(G. Rietveld)의 슈뢰더주택(Schröder House)과 도스브루그의 반구성은 보다 적극적으로 단편화시킨 예이며, 이 작품들에서는 단편화에 의하여 매스를 파괴하고 두께가 없는 면과 선이 3차원적으로 복잡하게 결합된다(그림 6. 참조). 르코르뷔제의 가르슈 주택(Maison Garche)도 볼륨의 기하학적 형태가 코너에서 슬릿으로 잘



〈그림 5〉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로비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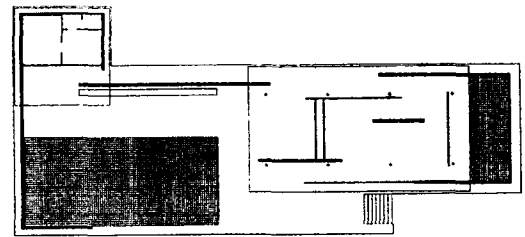


〈그림 6〉 게릿 리트벨트, 슈뢰더 주택

려 있으며, 동시에 네 개의 입면은 서로 달리 구성되어 있다.

3) 기하학적 입체의 구성

단편화는 벽이나 기둥 등이 면이나 선의 요소로 분해되는 것을 말하지만, 이 경우는 여러 개의 완전한 입체가 조합되어 건물전체를 만들어 내는 방법이다. 근대건축의 다양한 기하학적 형태구성의 중요한 점은 어느 방법이나 그 기하학적 입체가 무한한 연속체로서 이해되고 있다. 미스의 바르셀로나 파빌리온(Barcelona Pavilion)이나 르코르뷔제의 국제연맹계획안에 이르기까지, 그것들은 완전히 닫혀진 기하학적 입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소로서 선택된 기하학적 형태와 구성이라는 방법에 의해 공간 속으로 그것들을 위치시키고 있으며, 그 전체는 외부로 향한 형태와 공간의 확장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그림 7. 참조)



〈그림 7〉 미스 반 데 로에, 바르셀로나 파빌리온

4. 해체 및 실험적 건축의 기하학적 디자인 표현 특성

4.1. 해체 및 실험적 건축의 기하학적 표현 특성

1) 기하학적 디자인의 이론적 배경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던 근대건축운동은 CIAM 형성 이후 미국의 실용주의에 영향을 받으며 소위 국제주의양식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것은 제 2 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자본주의가 세계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기능주의로 변성하면서 선진 자본주의의 국가는 물론 제 3 세계 국가에 이르기까지 널리 파급되어 지배적 지위를 점하게 되었다. 근대건축의 순수기하학적인 양상도 또한 변화하기에 이른다. 1960년 이후 재평가되기 시작한 근대건축운동은 이태리 중심의 신합리주의의 경향 및 미국 중심의 신사실주의의 경향 등에 의한 소위 포스트모던의 등장과 함께 비판되기 시작하였다. 즉, 기존의 사고에 대한 반발과 함께 모든 사유체계에 대한 재인식의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에서 유학하고 온 램 쿨하스(Rem Koolhaas) 및 엘리아 쟁겔리스(Elia Zenghelis), 베르나르 츠뭉미(Bernard Tschumi)가 영국의 AA스쿨의 디플로마를 맡으면서 이전의 경향과는 상이한 일련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이들과 함께 대표적으로 AA스쿨의 학생이었던 자하 하디드(Zaha Hadid)와 OMA의 멤버와 현재 아키텍토니카(Arquitectonica)의 핵심 인물인 로린다 스피어(Laurinda Spear)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 해체주의건축은 이론적으로 자크 데리다의 해체주의 철학을 배경으로 하면서 디자인 원리와 형태면에서 러시아 구성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이들은 이데올로기적 측면과는 무관하지만 구성주의의 형태적 측면 특히 절대주의적 추상 기하학을 사용하

였으며, 이질성과 단절, 부정합 등의 요소를 보여주기 위해 파괴적인 기하학으로서 추상을 선택하고 있다.

2) 기하학적 디자인의 표현특성

1988년 MOMA 전시회의 최초 제목은 '침해된 완전성(Violated Perfection)'이었으며, 부제는 '건축적 파편의 의미(the Meaning of Architectural Fragment)'였다. 이것은 잃어버린, 도달되지 못한 등의 뜻과 완전성이 침해되었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었다.¹²⁾

이러한 용어의 이면에는 모더니즘의 완전성속에 내재해 있는 본원적인 타락과 오염을 폭로함으로써, 건물에 내재하는 본원적 딜레마들을 규명하고자 하는 사고가 깔려있다. 그래서 이들은 러시아 구성주의자들의 입장에 서서 안정되고 완전한 형태의 건축이 갖는 유토피아적 환상을 무너뜨리려는 전략적 태도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즉, 안정된 형태가 사회의 토대가 된다는 문화개념에 대해 이들은 걱정하고 추상적 기하학이 내부의 생소한 성질을 함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은 규칙적인 구조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하학적인 변형을 시도하였다.

형태상에 있어서 MOMA 전시회의 작가 7인의 공통점은 사진, 불규칙한 각, 혹은 부등변 사각형의 줄무늬를 사진으로 겹쳐 놓은 것 같은 형태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형태 요소들을 중첩시킴으로서, 동시성(Simultaneity), 침투성(Interpenetration), 불안정(Ambivalence), 시공(Space-Time), 투명성(Transparency), 중첩(Superimposed), 그리고 다층(Multilayered) 등을 의도하게 된다.

공간상에서는 한정요소인 바닥, 벽, 천장, 개구부, 계단 등이 불안정성을 표현하고 있다. 이들의 공간개념속에는 통일 대신 해체, 통합 대신 분리, 허구적 공간 등의 논리가 내재하고 있으며, 정형적으로 분할된 전통적인 공간유형에서 벗어나 파괴적 기하학의 추상화된 공간을 전개시키고 있다.

재료는 가설적 이미지와 중성적 이미지를 부여하는 대리석과 금속판, 반사유리 및 거울, 합성수지재 등의 구성재들을 대비적으로 채용하면서 선형요소로써 혹은 곡선요소로써 부정형의 기하학적 형태로 결합되어 있다.

공간구성의 전략적 개념은 탈구성, 탈중심으로 크게 구별되며, 탈구성은 불연속, 전위, 변위, 분리, 분열이라는 공간조작방식을 통해 나타나며, 탈중심은 전도, 이질, 단절, 붕괴하는 공간조작을 통해 비선형 기하학적 형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¹³⁾

기능적 요구 또는 주변 맥락과의 단절로서의 프로그램 해체, 양식 자체의 해체, 타 영역간의 경계 해체, 연속성의 해체 등의 기존의 사고를 해체시킴으로서 건축의 실체도 해체되고 역사적으로 축적되어온 건축적 유산은 모두 변형되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것은 흔적이라는 개념을 통해 역사적인 가치를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어 새로운 형태로 창출하였다. 피터 아이젠만(P. Eisenman)은 파디올

라 주택(Guadiola House)에서, 그 장소성과 연관을 맺으며 역사적 파편의 재기입을 의미하는 표현을 하였다. 이같은 탈중심으로서의 흔적, 스케일링, 발굴, 중첩 등의 방법은 조형적으로 말레비치와 몬드리안의 비대상적 추상회화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내외부의 동시적 병치, 외부에 표면화된 건물의 단면 등 큐비즘적 수법으로서 개방된 입체의 표현, 여기에서 파생된 매스의 투명성 강조와 직교체계의 탈피는 운동, 긴장으로서의 방향성과 비물질성, 탈중력의 개념을 표현하고 있다.¹⁴⁾

따라서 이같은 표현들은 세계내의 불확정성의 논리와 평행선을 이루는 일탈적 개념하에 복합적이고 추상화된 기하학적 형태의 조합을 통해서 획득되고 있는 것이다.

4.2 해체 및 실험적 건축의 기하학적 표현특성 사례분석

1) 해체주의 건축의 기하학적 표현 특성

상기한 바와 같이 해체주의자들은 다양한 종류의 개념과 방법으로 해체와 재구축을 하고 있으며, 건축적 어휘를 쪼개고, 건축요소를 분해하여 재현과 추상의 일치, 반복과 불연속성이 일어나는 곳에서 얻는 건축적 만족을 지향한다. 이들의 다양한 개념과 표현 방법을 작가별로 분류해보면 <표. 1>과 같다.

2) 실험적 건축의 기하학적 표현특성

최근의 새로운 실험적 혹은 창조적 정신을 주장하는 젊은 건축가들은 순수기하학에 디자인의 기본을 두고 생각하기 보다는 전혀 생소한 불완전한 기하학을 도입하여 새로운 정신이 깃든 접근 방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그들의 형태, 공간 및 재료의 사용 역시 새로운 실험적 정신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양한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2>

5.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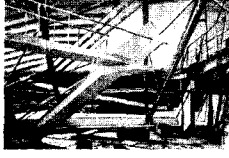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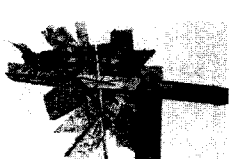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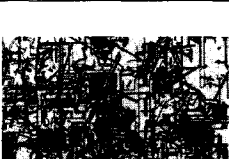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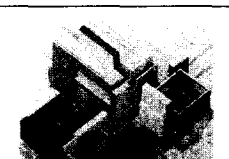
근대건축의 기하학은 건축의 순수성과 절대적인 비례체계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며 또한 효율적인 공간구성을 가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기능적 수단이었다. 이것은 평면적인 유클리드 기하학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체적측정이 용이한 수직과 수평에 의해 기본적인 위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근대건축 이후, 이와 같은 기하학의 결정론적 성향을 배제하고자 하는 최근의 노력은 기하학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좀더 다원적 성향으로 나타났다. 즉,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동일시 될 수 없는 평행선과 정형적인 도형과 부정형의 도형이 구분되지 않는 일종의 추상화된 기하학이 표현되었다. 왜곡된 원, 중심을 인지할 수 없는 원호, 다양한 곡률을 가지는 곡선, 평행하지 않은 선, 부정형 등이 서로 독립성을 유지하며 중첩되고 때로는 우연히 결합되기도 하였다. 또한 전통적인 근대건축의 '형태는 기능을 지향한다' 또는 '추상은 형상을 지향한다'라는 이원적 대립 양상을 추구하였고, 이러한 이원성속에 숨겨진 하이어라키를 함축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하이어라키에 대한 부인은 '둘(both)' 이면서 동시에 '아무것도 아닌' 14) 앞의 책, pp.3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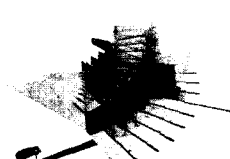
12) Aaron Betsky, Violated Perfection, Rizzoli, 1990, pp.15-33.

13) 윤도근 외, 해체주의 건축 디자인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홍대논총, 1993, pp.28-29.

〈표 1〉 해체주의 건축의 기하학적 표현특성

표현특성	기하학적 표현양상
탈중력적 표현	<p>개방된 입체 표현 구조로부터 벽체의 해방, 개방과 폐쇄의 대립으로 매스의 투명성 강조</p> <p>코프 험멜브라우 (Opem House)</p> 
	<p>직각체계의 탈피 사선의 방향성 강조, 개구부의 형태와 각도의 변화, 이질적 각도의 삽입.</p> <p>다니엘 리베스킨드 (Berlin City Edge)</p> 
	<p>양과감의 탈피 선형요소의 결합에 의한 매스의 표현, 건물의 모서리를 자유롭게 하여 시공확장 유도</p> <p>코프 험멜브라우 (Funder Factory)</p> 
	<p>접지성으로부터의 이탈 철과 유리를 이용한 투명성, 외부의 동적처리 및 펠로티의 사용 등을 통한 부유하는 공간창조.</p> <p>베르나르 추미 (Video Gallery)</p> 
추상화된 기하학적 형태의 복합적 구성	<p>추상화된 기하학 왜곡된 원, 중심을 인지할 수 없는 원호, 다양한 곡률의 곡선, 부정형</p> <p>다니엘 리베스킨드 (Potsdamer Platz)</p> 
	<p>층화(Layer) 중첩, 폴라추</p> <p>코프 험멜브라우 ((Apartment Complex)</p> 
	<p>탈의미적 형태 목적적 의미를 갖지 않는 우연의 추구</p> <p>다니엘 리베스킨드 (Micromegas)</p> 
	<p>형태의미의 불확정성 형태의 유희, 유사한 형태의 조각, 조합으로 다양한 의미의 창출</p> <p>피터 아이젠만 (House-X)</p> 

〈표 2〉 실험적 건축가들의 디자인 개념과 기하학적 표현특성¹⁵⁾

건축가	디자인 개념과 기하학적 표현	작품사례
윌 알솅 (Will Alsop)	구성요소들의 De-Coupling : 이미지의 비일상적인 결합. 움직임을 통한 구성요소들의 De-Coupling.	Hotel du Department 
닐 데나리 (Neil Denari)	기계적 유희 : 건축적 기계화를 통한 기술 지상주의의 숭배.	Tokyo Forum 
딜러와 스코 피디오 (Diller & Scofidio)	건물의 Hinge개념 : Hinge는 참여자나 관찰자의 기여를 통해 완성되는 부재적인 구성요소.	Slow House 
레비우스 우즈 (Lebbeus Woods)	기계적 유희 : 기하학과 빛을 건축의 근원적인 요소로 취급. 움직임이 사고의 이상을 구체화하는 형태.	Zag Reb Zone 
바람 쉬덜 (Bahram Shirdel)	카오스 이론 : 기하학과 수학을 이용한 카오스 이론과 프로그램의 불확정을 통해 변화하는 도시안에서의 건축 제시.	Nara Convention Hall 
귄터 젤퍼 켈프 (Günter Zamp Kelp)	매체-기술적 표현 : 매체의 파괴적인 경향을 분석시키고 건축적 의사 전달수단으로서 이용.	His and Hers Kelp House 

(neither)'이라는 복잡한 이미지를 의도하고 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많은 이미지를 중첩시키거나 덧씌우기함은 전략적인 층화의 핵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근대의 기능주의 건축은 인간을 위한 건축을 주장하여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공간을 중요시하며 기능을 무시하는 형태의 조각은 무의미한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해체주의 이후 건축에 있어서 이러한 의도

15) Andreas Papadakis 외, Theory+Experimentation, p.78, p.167, p.393, p.367, p.411, Academy Edition, 1993.

된 의미보다는 무의미한 것의 의미에 더 주목하였다. 즉, 해체 및 실험적 건축가들은 목적적 의미를 갖지 않는 것이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따라서 그들은 이러한 차원에서 우연의 추구를 통한 탈의미적 형태를 주장하였다. 또한 그들은 기하학의 구성이 갖는 직관과 형식화의 가능성을 찾기 위해 인식의 원점으로 되돌아감을 표현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비례의 단편적인 기하학적 형태들과 선들은 우연적으로 산재되어 여러 가지 체계의 직교좌표로 구성된 공간 구조속으로 삽입되어 나타나고 있다.

해체 및 실험적 건축은 형태의 변형, 조작, 침식, 뒤튐 등을 시도하는데, 이러한 작업은 이론의 형태적 표현이라는 목적에서 시도되기도 하지만 주된 목적없이 행해지기도 한다. 따라서 그들의 건축에 있어서 디자인 표현 특성은 기하학적 형태들의 중첩과 끌라쥬 기법의 사용과 탈의미적 형태의 우연적 구성 그리고 형태의 유희, 유사한 형태의 조작, 조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디자인 특성을 갖는 해체 및 실험적 건축은 모더니즘의 추상보다 더 난해한 이론과 형이상학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공통적인 디자인 형태 언어는 모더니즘의 형태 언어인 기하학적 어휘들이며, 단지 그 구성의 방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기능주의적 모더니즘의 디자인이 장식을 거부하고 합리적 의미를 갖는 것에 비해, 해체 및 실험적 건축가들의 기하학 구성은 모더니즘의 합목적적인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믿음을 해체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하학적 형태를 사용하고 있다.

참고문헌

1. 이성범외, 신과학운동, 범양사출판부, 1986.
2. H. Read, 현대미술의 원리, 김윤수역, 열화당, 1982.
3. 오광수, 추상미술의 이해, 일지사, 1988.
4. 백기주, 미학, 서울대출판부, 1978.
5. 김성곤편, 탈구조주의의 이해, 민음사, 1990.
6. 이광래, 해체주의란 무엇인가, 교보문고, 1992.
7. 김상길, De Stijl건축의 형태구성에 관한 연구, 홍대석론, 1985.
8. C. Van de Ven, 건축공간론, 정진원역, 기문당, 1988.
9. 정인국, 근대건축론, 문운당, 1974.
10. Anatole Kopp, Constructivist Architecture in the USSR, Academy Edition, 1985.
11. Andreas Papadakis외, Deconstruction-Omnibus Volume, Academy Edition, 1989.
12. Aaron Betsky, Violated Perfection, Rizzoli, 1990.
13. Andreas Papadakis외, Theory+Experimentation, Academy Edition, 1993.
14. Camilla Gray, The Russian Experiment in Art 1823-1922, Thames & Hudson, 1986, pp.180-182.
15. Rem Koolhaas, Delirious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78.
16. 윤도근외, 해체주의 건축 디자인의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홍대논총, 1993.
17. 김광현, 건축형태에서의 수와 기하학, 건축사 8903.
18. 임종엽, 절대주의가 현대건축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홍대 석론, 1989.

〈접수 : 1997. 5. 3〉